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일본어의 과제

이창익

〈국문 요약〉

현재 제주도는 일본어 사용은 많으나 일본어 서비스 면에서는 취약하다. 안내책자, 메뉴판, 간판 등 오용투성이의 일본어가 많이 눈에 띄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로 표지판도 일본어 병기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일본인을 위한 양질의 일본어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번역을 전담할 전문기를 양성하여야 하며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이 이 역할의 선도에 서야 한다.

주제어 :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회의, 일본어, 통번역전문인력

물어가면서

제주도는 60년대 이후 특색 있는 제주도 개발을 위해 6차례에 걸친 '제주도건설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공항·도로·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본인프라¹⁾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관광위락시설의 부족, 언어불편 및 가격경쟁력 열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내국인의 해외관광은 급증한 반면, 외국인의 제주관광은 저조하

1) 공 항 : 제주국제공항(운항회수 80천회/처리능력 143천회, 이용율 56%/항 만 : 무역항 2(제주·서귀포), 연안항 5, 어항 6개 등 13개항/도 로 : 총연장 2,800km(포장율 80.6%)/전 력 : 총 68만kw 공급능력(발전 53만, 해저케이블 공급 15만)/통신 : 해저광케이블, PSTN(26만회선), ISDN(1,265회선) 구축/대 학 : 국립대 2(종합대 1, 교육대 1), 사립대 1, 전문대 3/관 광 : 관광호텔 45(객실수 5,822, 객실이용률 72%), 콘도 9/일박호텔 73, 골프장 8, 카지노 8, 컨벤션센터 1('02.12 완공)(통계는 2001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에 의함)

게 되었다.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건 미성숙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 후,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제주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관광·업무·첨단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안'이 2001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그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로 개발,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로 발전시켜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국제화의 선도기능 함양을 개발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국제화 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외국어교육의 강화와 외국대학분교 유치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외국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상 일본어나 중국어도 영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외국어의 사용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육은 예나 다를 바 없는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외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국제관광도시로서 또한 국제회의도시로서의 면모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의 고급인력에게 양질의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인적 인프라가 마련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국제회의산업을 유치하고 이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일본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일본어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제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나 국제회의 참석자들의 수는 한해에 1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통번역 서비스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들의 현실과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국제회의의 국제관광도시 제주와 일본어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2009년까지 대규모 국제대회를 4개 유치하게 되어 국제회의도시로서 급부상 중²⁾임을 알리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국제회의 개최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제주가 유치한 것이 '2008 유니시티 글로벌 컨벤션' 과 '2009 세계 델픽대회'이다. 전자는 외국인만 10,000명 규모이고 후자 또한 외국인만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회의로 내국인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회의산업이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이 회의를 통한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³⁾는 1차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관광도시 제주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지방보다 비교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게 되고 최상의 컨벤션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회의장뿐만 아니라 회의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소통의 문제는 회의산업을 성공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열쇠가 된다. 제주를 소개하는 인터넷에서부터 안내책자, 도로표지, 간판, 식당 메뉴 그리고 주민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일본어는 제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지만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의 일본어 위상은 미미하다. 컨벤션센터를 갖추고 있고 특급호텔에 동시통역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주에 일본어전문 국제회의통역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도로표지도 일본어 표지는

2) 뉴스와이어 06년 6월 7일자 보도

3) 한국은행 제주지점에 따르면 2004년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593억의 직접이익을 내었고 유발효과로서 생산유발효과 765억원, 소득유발효과 34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55억원 등 총 1563억원의 효과를 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무하고 중국한자어만 영어와 병기하는 것을 보면 일본어에 대하여 무관심한 제주의 관광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인이 자주 다니는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일본의 관광지에 가보면 도로표지에 영어에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재삼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국제회의산업과 관광산업을 전략화시키기 위하여 도로표지 등에 일본어 표기의 도입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표면적으로 일본과 일본어에 대한 관심은 어느 지방보다 많으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에 일본어 사용을 꺼려하는 것은 모순된 현실이다.

2. 제주도내의 일본어 교육실태

제주는 예로부터 일본과 직·간접적 교류가 많았다. 일제 강점기시대에 5만 명 이상의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생업에 종사했던 관계로 제주출신 교포가 상당수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그 수는 약 1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1, 2, 3세 포함). 이러한 일본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일본어에 대한 지식도 상당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제주에서는 일본어가 본토의 어느 지방보다도 일상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일본어를 제주방언이라고 잘못알고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일본어에 대한 거부감이 타 지역에 비해 적어 일본어학습도 활발한 편이다. 제주대학교가 '77년에 전국 국립대학 최초로 '일본어과'를 설치한 것도 이런 제주의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총30개교 가운데 30개교⁴⁾ 전부이고 중학교 과정에서 특별과목학습활동시간에 일본어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도

4) 중국어와 복수로 선택하는 학교가 20개교이고 일본어 단독 선택이 10개교이다. 이들 학교들은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1년간 가르치고 있고 1주일에 평균 3시간의 수업시간을 가지며 주로 2학년 수업에 채택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3학년에 일본어2를 가르치기도 한다.(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관, 진학사와의 진척 인터뷰에 의함)

3개의 2년제 대학에 일본어 관련학과(관광일본어통역과 등)가 설치되어 있고, 4년제 대학⁵⁾에서도 전공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교양과정에서 운영하는 등, 일본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또한 제주도와 각 시군의 지원에 의하여 외국인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보수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재제주일본국 총영사관에서도 2001년부터 해마다 3~4개의 일본어 반을 개설하고 있다. 그 외의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동사무소, 여성교육원 등에서, 일본어전문학원 등에서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활발한 편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유추해 보면 일본어교육은 어느 지방보다 앞서 있으면서도 그 일본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일본관광객을 중시하면서 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광도시 제주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일본어 사용 현황

제주도의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는 고급 인력이 1년에 약 200여명 이상 배출된다. 그리고 일본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장단기 연수를 경험한 학생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만 보더라도 일본의 10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학생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8개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다. 교환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1년간 공부하는 학생은 2001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일본어전공학생이 18명이고 비일본어전공 학생이 24명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졸업 후,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게 되고 교직 등 일본관련 업종에 취직하여 직·간접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신제주권을 중심으로 각종 상점의 간판

5) 제주교육대학교와 탐라대학교가 있다. 제주교육대학교에서는 교양과목으로, 탐라대학교에서는 교양과 심화과정으로 설치되어 있고 제주대학교에서는 일어일문학과 및 일어일문학 부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제주대학교 교양과정 개편에서 외국어가 필수선택이 되어 있는데 신입생의 일부인 선택지는 약 350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나 식당의 메뉴도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많다. 종사원들도 능력차이는 있으나 조금씩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오래 거주한 후 돌아와 일본인을 상대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이러한 인력들은 관광제주의 얼굴이지만, 잘못된 언어사용과 번역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긴다.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손님들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짧은 일본어 때문에 제품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간판의 표기나 메뉴표기 등도 통일되지 못하여 같은 품목임에도 다른 품목처럼 착각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본어 활용범위는 광범위하지만 문제는 정확히,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4. 일본어 사용의 문제점

제주도에는 1991년에 일본국총영사관이 설치될 만큼 일본으로서는 자국민 보호와 외교활동에 있어 제주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제주가 일본인이 자주 찾는 국제관광도시이고 하시모토, 오부치 총리가 제주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등,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는 도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총136,202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총 수인 329,215명의 약 41.3%에 해당하는 숫자이다⁶⁾.

외국인의 총 입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인의 입도비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절대적 숫자로나 비율로는 하향세이지만 아직도 10만을 넘는 인원이 제주를 찾고 있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

6) 지난 5년간 연도별 입도 현황을 보면(일본인/외국인 총 입도수), 99년 126,128/246,955(51%), 00년 147,358/288,425(51%), 01년 147,525/290,050(50.8%), 02년 134,120/289,496(46.3%), 03년 98,950/221,017(44.4%)이고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했던 93년은 189,536/277,359(68.3%)이다. 04년에 중국관광객은 101,238로 30.7%를 기록하여 중국관광객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는 제주관광진흥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음)

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언어소통의 원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를 알리고 제주를 찾는 일본인에게 정확한 의사를 서로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일본어 사용인구는 많지만 각종 번역 자료의 오역이나 부정확한 통역 등이 문제가 된다. 그 예로 일본어국제회의전문통역사 자격을 갖추지 않고 통역에 나선다든가, 전문번역사가 아닌 사람들이 제주를 알리고 제주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를 일본어로 내보낼 때 문제가 발생한다.

4.1 일본어 통역의 문제점과 대책

통역에는 대·소규모의 국제회의에서의 동시통역이나 순차통역, 일본인 관광객대상의 국제가이드에 의한 통역이 있다. 2003년에 3월에 개관한 제주컨벤션센터(ICC)에서는 2005년 9월 30일 현재 총 34건의 국제회의를 유치(03년 10건, 04년 18건, 05년 6건)하고 있고 그 밖의 특급호텔⁷⁾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회의들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회의에서는 인원수가 많은 큰 규모이거나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를 하였을 때 다국어로 동시통역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한영·영한만이 이루어져 일본어 동시통역의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많은 규모의 회의가 제주에 유치가 되면 적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통역이 필요한 국제회의의 개최 시, 주최 측의 인식부족이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전문통역사가 아닌 일본어를 잘하는 가이드나 일본에서 장기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저렴하게 빌려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과연 정확하게 내용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회의는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해당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과 통역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7) 국제통역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제주KAL, 중소기업센터, 제주컨벤션센터이고 이외의 특급호텔은 각 서비스를 선취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제주에서 風力이나 IT에 관한 한일국제회의가 개최 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사용되는 많은 어려운 전문적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한자어의 통역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일이지는 하나 동음이의어의 오역은 회의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 있고 통역자 자신도 통역을 하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영어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IT에 관한 회의에서는 통역자의 영어발음도 상당히 중요한 통역요소로 작용된다. 일본식 영어발음은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생소하고 반대로 일본인들에게는 원음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특히 전문 통역사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test'를 한국인 청자에게 '테스트'로 전달하고 역으로 일본인 청자에게는 '테스트'로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통역에 대한 기본적 테크닉이 부족할 경우 통역자가 당황하여 인식하지 못한 채 화자의 발음을 그대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즉 그 회의에 맞는 전문적 용어나 발음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흐름을 부드럽게 소화시켜 통역해 낼 수 있는 것이 회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 그 분야만 연구하고 있는 전문통역사조차 준비기간이 모자라던 사소한 실수를 하곤 하는데 일본어만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안타깝게도 통번역에 대한 오해는 '일본어를 잘하면 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의 외국어 능력과 통역사의 외국어 능력의 차이는 통역사가 좀 더 고도의 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해당 외국어를 듣고 정확히 이해한 것을 '출발어의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도착어로 재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⁸⁾. 통역이란 단순히 단어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주에서 열리는 대·소규모의 국제회의에서 양질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제회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가 회의 개최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셈이 되고 만다. 회

8) 김수희 외, 「韓日-日韓 통역·번역의 세계」, 시사인보에사, 2003. 3. P.25

의 개척 측의 인식전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규모와 관계없이 통역사가 필요한 국제회의의 개척 시, 반드시 전문통역사를 채용하도록 법적규정을 만들어 명시할 필요가 있다.

4.2 일본어 번역의 문제점과 대책

21세기는 번역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지구촌의 모습들이 해당 국가의 언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한글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 빠른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자동번역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생소한 외국어와 접근할 수 있고 번역의 오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의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을 알리는 내용들을 모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흠들을 발견하게 된다.

제주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일본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본어 안내문, 간판, 큰 식당의 메뉴판도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 제주에 관심 있는 일본인이거나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에 대해 알고자하는 일본인은 아마 제주관련 책자를 읽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주에 관한 정보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를 직접 방문하는 일본인들은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제주의 맛을 찾기 위하여 갈비집(燒肉) 이나 향토음식점등을 찾게 될 것이다. 책자에서 소개된 내용들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기(誤記), 오용(誤用)등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또한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안내문으로 써있는 일본어 번역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음식점을 찾았을 때 메뉴판을 앞에 놓고 음식을 고르려하다 보면 생소한 표기에 곤혹스러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원문 파악 부정확에 따른 오역과 용어문제로 인한 오역으로 자그만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일본인으로서 이상한 일본어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세심하지 못한 번역의 실수로 인하여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흐려놓을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로 회자될 수 있지만 정작 제주에서는 사소하게 치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일본어판은 많은 오역(誤譯)으로 인하여 05년 상반기까지 꽤나 민원거리가 되었다. 이 일본어판 홈페이지는 1999년에 만들어져 몇 차례 감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무려 6년 만에 전면적인 감수 작업을 필자와 靑山智代子 한라대 겸임교수⁹⁾가 맡게 되었다. 감수이전의 일본어의 번역문은 일본어 전문가가 번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문장자체의 오역과 어휘선택의 부자연스러움뿐만 아니라 부연설명(예를 들면 道旗의 설명부분에 三多와 三無가 나오는데 일본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이 없고 한자 및 가나표기의 부정확성과 기호 및 부호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많은 빈축을 사고 있었음에도 도 당국에서는 그때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다. 여러 가지 비판의 상당부분을 도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 오역의 實例를 몇 가지 살펴보면, 번역의 오류와 표기의 오류, 어휘선택의 부적절함을 들 수 있다.

4.2.1 전문용어 번역의 오류

● 제주큰오색딱따구리/濟州大五色キツツキ→濟州オオアカケラ

이것은 제민일보 독자란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인데 원 번역자는 이 분야의 일본어 전공서적을 읽지 않았거나 찾지 못하여 그냥 직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서적에 의하면 ‘오색딱따구리’가 オオアカケラ로 되어 있는데 ‘제주’가 붙어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オオアカケラ앞에 濟州를 넣어 고유명사화 하였다.

9) 약2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으로 감수 이전은 표기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을 이름등도 전부 가타가나표기(어떤 것은 한자로 표기하기도 함)로 하여 일본인에게 마을이름의 의미전달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번역한 것도 많이 있으나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여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그 후 도청의 ‘옥에 티’란에 몇부분의 민원이 제기되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4.2.2 단어선택의 부적절성

- 기후분류학상 아열대성 기후권에 들어갑니다./ 氣候分類學的には亞熱帶性氣候圏には入っています→氣候分類學的には亞熱帶性氣候圏に屬しています

はいる는 '-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동작동사로서 여기서는 적절치 못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의 '들어갑니다'는 '-로 동작하여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닌 '-에 속한다'는 의미로 '屬する'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

- 최근 30년간 제주도의 연평균기온을 보면/最近30年間の平均氣溫をみると→近年30年間の平均氣溫をみると

'最近'은 시간의 길이가 짧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30년간 함께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최근 30년을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最近'대신 '近年'을 사용하였다.

- 초속 10m 이상의 폭풍일수를 보면/秒速10m以上の暴風日數をみると→秒速10m以上の強風日數をみると

『日本國語大事典』、小學館、S49에 의하면 暴風은 '氣象で、風力階級10の風。風速が每秒24.5メートルから28.4の間の風を言う'라고 되어 있다. 초속 10m이상의 바람을 폭풍(暴風)으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이며 강한 바람이라는 의미의 강풍(強風)이 적절하다. 한국어 자체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

- 현대건물, 삼성화재건물.../現代建物、三星火災建物...→現代ビル、三星火災ビル

建物は 건축물 자체를 가리킬 때 거의 사용하며 일반 건물 명을 나타낼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建物は 부적절하다.

- 도지사 위로서한 전달 및 성금 1만달러 지원/道知事の慰勞書翰傳達及び誠金1万\$支援→道知事の慰勞書簡傳達及び見舞金1万ドル支援

‘書翰’은 우리식 한자표기이고 ‘誠金’도 마찬가지이다. 달러표시는 부호보다는 ドル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해남성 건성 10주년 경축행사 참가/海南省建省10周年慶祝の催しに参加→海南省建省10周年記念行事に参加

‘慶祝の催しに’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부자연스럽다.

-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英語驅使能力向上のため→英會話能力向上のため

전형적으로 우리말을 한자로 직역한 케이스이다. 의미전달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英語驅使’는 부자연스럽다. ‘영어구사’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英會話’가 자연스럽다.

- 상투튼 할아버지/サンツの被ったおじいさん→チョンマゲ姿のおじいさん

일본인이 읽었을 때 의미전달이 전혀 안될 가능성이 많은 번역이다. 상투를 우리 발음 그대로 ‘산쯔’라고 했지만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튼’을 ‘被る’로 번역했기 때문에 ‘튼다’는 의미보다는 ‘쓰다’는 의미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인이 이 의미를 애써 생각한다면 ‘상투라는 모자를 쓴’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 섬관광정책포럼/島觀光政策ポラム→島觀光政策フォーラム

외래어 표기는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외국어를 생각하면서 가타가나로 표기하지만 쉬운 몇몇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표기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도 표기에 대한 논란은 많은데 번역자의 정확한 표기가 요구된다.

이상 제주도청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부분적인 오류를 약간 보았는데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음은 외부의 메뉴나 간판을 보기로 하자.

식당 메뉴는 번역상의 문제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또한 같은 음식이지만 번역이 다른 것들도 자주 눈에 띈다.

● 불고기 ブルゴギ/焼き肉→?

일본에서 焼肉과 함은 '갈비집에서 취급하는 고기류 음식'을 통칭하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음식점의 음식종류의 한가지인 '불고기'를 '烧肉'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고유명사화시켜 발음 그대로 'ブルゴギ'로 번역해야 타당하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 물냉면 ムル冷麵/水冷麵→冷麵 *비빔냉면 ビビン冷麵

일본은 비빔냉면이 음식종류에 거의 없기 때문에 물냉면을 '冷麵'을 써서 사용한다. 즉 냉면은 물냉면밖에 없다. 메뉴에 'ムル冷麵/水冷麵'은 사족을 붙인 과대표기가 되어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메뉴로 착각할 가능성이 많다. '冷麵'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일본에는 없는 '회냉면'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을 'フェ冷麵'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설명을 부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サシミ入り冷麵' 등의 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도로 보았을 때 적어도 그들 중 반 수 이상은 이러한 번역이나 오용, 오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번역과 표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식당의 같은 메뉴라도 식당에 따라 번역내용이 달라진다면 많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공식적·공개적 자료 등에 대한 번역은 번역자의 실명제 도입을 통하여 철저한 책임관리 하에 두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해당 번역자와 원어민 감수자의 실명도 함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법

위의 작은 예만을 놓고 보더라도 크고 작은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일본어 전문가가 필요하다.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통번역체계를 갖추어야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본다. 가벼운 회화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에 의한 통번역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배출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일과가 설치된 것이 약 2년이 되었고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어전문가 양성의 최고 코스이다. 이곳에서 배출된 고급 인력은 일본어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제회의도시의 중요한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셈이다. 통역대학원은 국제자유도시의 외국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배출되어야 하며 국제회의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문서에서부터 각종 간판, 메뉴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정해 나가고 원어민 감수자에 의한 철저한 확인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이고 일본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다.

나오면서

일본인이 제주를 방문하는 이유는 회의참석을 위한 입도, 다른 하나는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도 그리고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한국인의 고향방문 동일 것이다. 회의를 참석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의산업도시로 지정된 제주도로서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부분이기때 이를 대비하기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전문가와 회의에 필요한 국제회의통역사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고부가가치의 관광회의 산업에 종사할 국제회의전문통역사가 제주에 한사람도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회의산업의 유치의 큰 허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일반관광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본어관광가이드의 총 수는 572명¹¹⁾으로 전국에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재교육 등을 통하여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회의통역사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각 자신들의 분야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상의 문서를 정확하게 번역함으로써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번역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또한 대학당국에서도 국제화인력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시설과 재정면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순희외 2인, 2003, “韓日日韓통역·번역의 세계, 시사일본어사

11) 남자170명, 여자462명이고 1962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지역에 등록된 인원임(제주도 관광협회 자료에 의한)

- 이덕봉, 2003, “日本語教育의 理論과 方法”, 시사일본어사
오경순, 2005, “일한 번역의 사례”, 한국일본어통번역학회 발표요지
박숙중, 2004, “언어간 유사성이 통번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일본어
통번역학회 발표요지
제주도건설 종합계획
인터넷, 2006, “국제회의개요”, 인터넷 홈페이지

<ABSTRACT>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Japanese

Chang-ik Lee

In Jeju, Japanese has been used frequently, but providing Japanese service is not enough. There are information brochures, menu boards, and signs that misuse Japanese, and interpretations that hav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Moreover, it is not convenient for Japanese tourists since road signs in Jeju are not written in Japanese. Jeju, as a city which aims at being an international city, should attract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this project. Beside, a good in quality Japanese service should be guaranteed for the Japanese participants. To do this, Jeju should train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nd th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t Cheju National University should take the lead in this part.

Key Words: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international convention, Japanese,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